

## 악성 종양과 동반된 신증후군의 임상 양상 고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병리학교실\*, 신장질환연구소

박정탁 · 이정은 · 김형중 · 유태현 · 류동열 · 정현주\* · 최규현 · 이호영 · 한대석 · 강신욱

**배 경** : 신증후군은 원발성 사구체 질환과 이차성 사구체 질환에 의해 유발되는데, 성인의 경우 이차성 사구체 질환에 의한 신증후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이차성 사구체 질환의 원인으로는 감염, 자가면역, 약제, 그리고 종양 등이 있다. 악성 종양의 경우 호지킨스병을 포함한 림프종과 동반된 신증후군에 대한 보고가 가장 많으며, 이외에도 고형 장기의 악성 종양과 동반된 신증후군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악성 종양과 동반된 신증후군의 증례는 종종 보고 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발병과 그 임상 양상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 등은 악성 종양과 동반된 신증후군의 임상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악성 종양과 동반된 신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및 병리학적 소견을 분석하였다.

**방 법** : 대상은 1986년부터 2003년까지 연세의료원에서 신증후군으로 진단받았던 20세 이상의 성인 신증후군 환자 중 악성 종양이 동반되었던 환자로 하였으며, 신증후군과 악성 종양의 진단 시기에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었던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결 과** : 전체 신증후군 환자 2,085명 중 48명 (2.3%)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57.9 \pm 10.9$ 세 (29-77세)이었으며, 남녀비는 2.43:1이었다. 악성 종양의 원발 병소로는 간과 폐가 각각 8예 (16.7%)로 가장 많았으며, 위 5예 (10.4%), 유방 4예 (8.3%), 그리고 방광, 전립선, 혈액 관련 악성 종양이 각각 3예 (6.3%)이었다. 악성 종양의 조직형으로는 선암이 14예 (29.2%)로 가장 많았으며, 편평상피암 9예 (18.8%), 그리고 간세포암이 8예 (16.7%)이었다. TNM stage 상 stage I, II, III, IV 환자는 각각 9예 (13%), 11예 (15.9%), 11예 (15.9%), 14예 (20.3%)이었다. 악성 종양의 병기와 24시간 뇨단백 배설량 사이에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대상 환자 48명 중 26명 (54.2%)에서 신장 조직검사가 시행되었다. 사구체 병변으로는 막성 사구체신염이 9예 (13%)로 가장 많았으며, 미세변화 신증후군이 6예 (8.7%), 막중식성 사구체신염이 2예 (2.9%)이었다. 신증후군에 대한 치료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환자는 1예 (2.1%)이었으며,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사용한 환자는 2예 (4.2%), 그리고 단순히 이뇨제만을 사용한 환자는 25예 (52.1%)이었다. 악성 종양의 진행 여부에 따른 신증후군의 임상 경과를 분석한 결과, 악성 종양이 치료 (수술 또는 약물)에 반응을 보인 경우에서 악성 종양이 진행된 경우에 비해 신증후군이 호전 (뇨단백 배설의 감소)된 환자의 비율(55% vs 0%,  $p < 0.05$ )이 의의있게 많았다.

**결 론** : 악성 종양과 동반된 신증후군의 빈도가 외국 보고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성인 신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로 악성 종양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경우 악성 종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신증후군의 임상 경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